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6년 제9차 보건의료분과 회의자료(10월)

구 분	내 용
협의체 사회적 비전 & 미션	- 시민이 주인되는 복지공동체 - 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
보건의료분과 목 표	-수원시민의 신체·정신·사회·영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 - 건강 형평성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행복 실현
전략과제	- 수원시 건강형평성 증진 - 보건복지 연계체계 강화 및 활성화 - 보건의료분과 활성화

○ 일 시 : 2016. 10. 25.(화) 10:30

○ 장 소 : 명은전문요양센터

○ 진행순서

1. 인사 및 공유사항

- 1) 기관별 행사 및 정책 변동사항
- 2) 보건복지 정책 공유
- 3) 전차 회의결과

2. 안건토의

- 1) 2016년도 보건의료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3. 차기회의 일정

1. 인사 및 공유

1) 기관별 행사, 정책 변동사항 공유

○ 협의체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식 : 10/26(수) 14:00
- 협의체 활동결과보고대회 - 12월 중

2) 보건복지 정책이슈 (붙임자료 1)

- 보건정책 : 의약품 규제완화
- 복지정책 : 2017년 보건복지예산 분석

3) 전차 회의결과

(붙임자료 2)

2. 안건토의

1) 보건의료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추진

○ 추진경과

▷ 지역아동센터 아동 교육 의견수렴

- 평소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문항	응답
1)공부(학교 성적) 문제	8
2)친구문제	6
3)가족간의 갈등	0
4)경제적 어려움	1
5)외모문제(키, 몸무게, 생김새)	2
6)음주, 흡연 문제	0
7)컴퓨터(인터넷) 중독	2
8)진로문제	0
9)기타	체력1, 없음3

- 받고싶은 교육 2가지

문항	1순위	2순위	가산점
1) 영양교육(건강한 식생활, 식품안전 -인스턴트의 두얼굴 등)	5	2	12
2)건강 교육(비만예방, 구강관리 교육 등)	6	5	17
3)금연, 금주교육(흡연과 음주의 피해, 영향 등)	1	2	4
4)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3	3	9
5)성교육		5	5
6)진로교육	3	4	10
7)학교폭력예방 교육	5	3	13
8)기타	위기탈출 넘버원		2

▷ 경로당 : 장기요양교육, 치매예방 교육

▷ 교육진행사항

구분		드림지역아동센터	조원지역아동센터
건강영양교육	일 시	2016. 10. 19.(수) 17:00 ~ 18:00	2016. 10. 21.(금) 16:00~17:00
	참여인원	16명	24명
학교폭력예방교육	일 시	2016. 10. 12.(수) 16:30~17:30	2016. 10. 24.(월) 15:30~16:30
	참여인원	11명	24명

○ 향후 추진사항 논의 및 추진내용 평가

- 지역아동센터 교육 평가

- 향후 추진 방향 논의

3. 차기회의 일정

- 일시 : 11월 일, ()
- 장소 :
- 안건 : 2017년도 시행계획 수립 모니터링, 2017년도 활동 계획 논의 등

의약품 규제완화

의약품 규제완화는 신속한 시장출시와 가격우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의약품 허가 및 등재절차, 가격결정 방식 등이 규제완화의 주된 대상이다. 보건의료를 산업육성 차원에서 접근하는 정부 기조는 제약업계의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제도변화의 근거로 삼았다. 의약품 공급자의 수익성 담보가 제도개선의 핵심으로 수요자의 부담능력이나 공적보험에 미칠 영향은 우선적인 고려대상이 아니다. 의약품 영역에서 국민의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하는 정부가 오히려 제약 산업의 옹호자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을 위주로 한 공적재원을 제약산업 자본증식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처로 제공하겠다는 의도이다.

현 정부 들어 그동안 제기된 제약업계의 민원은 의약품 주요정책으로 곧바로 반영 되었다. 신약을 위주로 한 의약품의 시장출시를 촉진하는 대책들이 입안되어 현재에도 외국에 비해 신약허가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유럽각국 약 300일) 제약사 요구사항을 그대로 반영, 신약허가 기간을 기존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였고 식약처 임상시험 면제(예,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1상 면제)나 완화도 일제히 전개되고 있다. 제약사의 입맛에 맞춘 보험약가제도 개선 대책이 끊임없이 발표되면서 글로벌 혁신신약(세계최초로 허가받은 신약도 아님. 사회적 기여도 등 애매한 기준 적용)이라는 이름하에 건강보험 심사평가 기간을 120일에서 100일로, 건강보험공단 협상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시장 출시를 위한 진입장벽 해소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약품 가격결정방식도 주된 타깃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약품의 건강보험 가격결정은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선별등재방식이 주된 골간인데, 치료적 효과와 경제성이 담보될 경우에만 급여항목에 등재하겠다는 취지이다. 제약업계는 경제성 평가의 보수적 기준을 타하며, 기존 약제와의 비용효과성에 근거하기 보다는 환자의 필요성 등 약품 진입에 유리한 다양한 기준 적용을 요구해 왔으며, 보험자의 약가결정과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대안도 요구해 왔다. 임상적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이라는 이유로 가격협상을 생략 하는 조치인 대체약제 평균가(가중평균가 이하 약제 약가협상 생략)를 그대로 신약 가격으로 결정하는 정책이 현재 시행되고 있다. 보험자의 약가협상을 통한 약가인하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신약 가격에 대한 우대정책은 건강보험 재정의 수용능력에도 영향을 주어 제약업계는 신약에 대한 비용효과성의 수용한도(ICER threshold)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작년에는 이에 대한 정책결정 심의 절차(건강보험정책심의회)도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특정 약제의 ICER 임계값을 일반신약에 비해 두 배 가량 적용(약 5,000만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논란이 되었다. 제약회사의 로비 의혹과 함께 ICER 값을 임의로 적용하는 등 제도권에서는 이미 신약 우대를 암묵적으로 허용해 온 것이다.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혁신신약이라는

명분하에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는 등 의약품 고가 등제 정책이 서슴없이 자행되고 있고, 특히 만료시 까지 약가인하 유예조치도 적용하여, 약가 사후 관리 기전도 무력화 시켰다. 이러한 규제완화는 주로 희귀질환치료제, 항암제 유형이 해당되는데 이들 약제들은 대부분 국내 건강보험등제 약제 약가 순위에서 상위권(1~30위)을 점유하는 유형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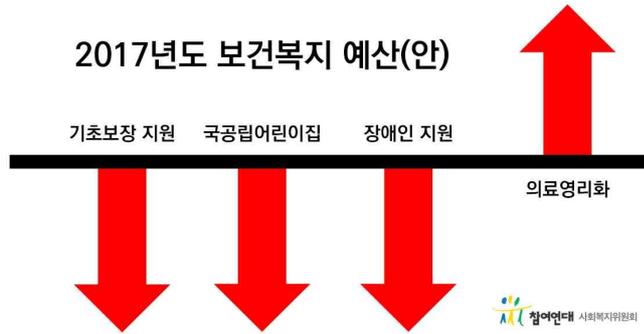
최근에 정부는 의약품의 신속등재를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까지 마련하였다. 정부에서 규정하는 ‘획기적’에 해당되는 특정 의약품(신약 및 바이오의약품이 주된 대상)은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쳐 심가 기간을 단축 하겠다는 것이 요지이다. 의약품의 신속등재나 일련의 고가약 등제 정책(제약사 특혜)은 건강보험의 재정부담으로 직결되고 결국 그 부담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몫이 된다. 제약사 민원이 정책집행의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되면서 건강보험 약가 제도의 주요 근간인 선별등제제도도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의약품 등제기준, 약가, 사용량 통제 등 공보험 관리 기전이 모두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 신속등재는 제외국 경험을 보더라도 분명한 경계 대상이다. 신속등재는 의약품 안전성에 위협을 주는 제도적 요인으로, 미국의 경우 신속허가 허용(The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PDUFA, 1992년 제정, 1997, 2002, 2007, 2012년 법안 개정)이후 의약품의 블랙박스 경고 및 퇴출이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증가되었고, 심각한 부작용에 의한 블랙박스 경고 가능성은 3.27배, 시장퇴출 가능성은 6.92배 높아졌다는 보고이다. 규제완화로 인한 이 같은 악 결과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의 의약품 규제완화는 의료민영화 정책과도 결부 된 것이기도 하다. 보건의료의 기본적인 체질 변화를 유도하고, 그 핵심은 시장중심 그리고 산업자본이 지배권한을 갖는 보건의료 제공체계의 변화이다. 58조원에 이르는 국민들의 공적자산(건강보험)을 타깃으로 제약 자본의 증식 경로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이다.

참여연대,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기초보장, 보육, 장애인 분야 전년대비 삭감되는 등 복지축소 경향
불평등과 빈곤 심화에도 취약계층 생존권 보장에 소극적 예산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기금포함)이 전년도 대비 2.6% 증가한 57조 6,798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사회보험 기금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예산은 2016년 33조 713억 원에서 33조 91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0.1%에 불과” 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 분할전략과 모호화전략 등으로 취약계층 예산을 삭감하고 보건의료산업화 추진을 통한 의료영리화 추진 등 공공성의 훼손과 시장화의 촉진” 을 보여주는 예산이라고 평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초보장분야는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예산을 삭감하였고 생계급여는 일부 증가하였지만 실제 수급자 수가 감소한다는 전망을 반영한 과소 추계이다. 또한 송파세모녀와 같은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는 16.5% 삭감 편성하였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예산” 이라고 하였다. 보육분야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전년대비 무려 38% 가량 감소된 189억 원만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150개소를 목표로 한 것보다 현저하게 75개소 밖에 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축보다는 공동주택리모델링을 통한 확충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소규모 시설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의 대체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 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분야는 “사회복지분야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예산임을 지적하고 특히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점 등이 문제” 라고 하였다. 노인분야는 예산은 절대규모에서 증가하였지만 질적 차원에서 후퇴한 예산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년대비 예산이 9.2%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기간의 확대, 급여수준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작년에 이어 전액 삭감된 점을 지적하였다. 보건의료분야는 “2017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44조 4,436억 원으로 예상되나 정부는 1조 3,485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고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보건의료산업정책, 빅데이터, 원격의료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 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분야는 “장애가구의 빈곤율이 전체가구 빈곤율보다 2배 이상임에도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등을 감액 편

성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수급권을 침해” 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불평등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2017년도 보건복지 예산(안)은 분할전략과 모호화전략을 통해 복지를 축소하고자 함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진정한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복지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 지적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편적 복지국가체제에 걸맞는 재정운용구조로 재구성화 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http://issuu.com/pspd/docs/sw20161020_____2017_____/1?e=2952507/39825320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6년 제8차 보건의료분과 회의록(9월)

일 시	2016. 9. 26(월) 16:30 ~ 18:00	기 록	임복희	확 인	김정원, 송명은															
장 소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중회의실																			
참석자	총 17명중 8명 참석 -공 1/6, 민 7/11(참석율 47.06%), 배석 별도																			
	김정원	장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장	○	송명은	명은전문요양센터장	○														
	김승영	수원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	김충영	사회복지과 복지자원관리팀 주무관	×														
	김민정	수원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팀장	×	이상진	아주대학병원 사회사업팀장	×														
	목진용	영통구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	정윤희	장안구보건소 보건정책팀 주무관	×														
	박연옥	수원시간호사회 회원(아노가너싱홈 원장)	○	정경희	무봉종합사회복지관 과장	×														
	김성림	영통종합사회복지관 팀장	○	정진선	팔달구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														
	엄애리	권선구보건소 지역보건팀 주무관	×	조현아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사례관리사	×														
	이윤주	호매실장애인복지관 지역복지팀장	○	주영자	수원병원 공공사업과장	○														
	서은아	SK청솔노인복지관 팀장	○	임복희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팀장-배석	○														
회의 안건	1. 인사 및 공유사항 1) 위원 변동사항 2) 기관별 행사 및 정책 변동사항 3) 2017년도 협의체 운영계획(안) 2. 안건토의 1) 2016년도 시행계획 중간평가 및 변경(안) 검토 2) 보건의료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3. 차기회의 일정																			
	1. 인사 및 공유사항 1) 위원 변동사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위 축 (임명)위 원</th> <th colspan="2">해 축(사임) 위 원</th> <th rowspan="2">변동사유</th> </tr> <tr> <th>성 명</th> <th>소속기관</th> <th>성명</th> <th>소속기관</th> </tr> </thead> <tbody> <tr> <td>당연직 위원</td> <td>장윤희</td> <td>장안구보건소</td> <td>유찬희</td> <td>사회복지과 휴먼복지 지원팀</td> <td>2016.9.1. 인사이동</td> </tr> </tbody> </table>					구분	위 축 (임명)위 원		해 축(사임) 위 원		변동사유	성 명	소속기관	성명	소속기관	당연직 위원	장윤희	장안구보건소	유찬희	사회복지과 휴먼복지 지원팀
구분	위 축 (임명)위 원		해 축(사임) 위 원		변동사유															
	성 명	소속기관	성명	소속기관																
당연직 위원	장윤희	장안구보건소	유찬희	사회복지과 휴먼복지 지원팀	2016.9.1. 인사이동															
회의 결과	2) 기관별 행사 및 정책 변동사항 - 협의체 : 사회복지의날 기념 수원시 나눔한마당 9/24 - 수원시 : 수원화성문화제 법시민 캠페인 홍보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 커피축제 10/22(토) - SK청솔노인복지관 : 복지관 카페 운영 중, 10/11 노인문화축제 - 아노가너싱홈 : 사무실 증축 - 호매실장애인복지관 : 되살림가게 지역화폐 운영																			

지역주민 베희시장 10/8

- 수원병원 : 취약계층 의료비지원,
라이프테크사업 설명(스마트워치 이용 만성질환자 관리)
- 수원시장애인복지관 : 10주년 행사 10/28
- 장안구보건소 : 독감예방접종, 75세이상 10/4, 65세이상 10/10
건강도시 토론회 11/28

3) 2017년도 협의체 운영계획(안)

- 내용 설명, 의견수렴

2. 안건토의

1) 2016년도 시행계획 중간평가 및 변경(안) 검토

사업 번호	구 분	중점추진사업	세부사업명	사업부서	변경(안)	중간평가 모니터링의견
2-1	보편	정신질환 위기 및 응급 개입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 위기 및 응급 개입 치료비 지원	장안구보건소	-의견 없음	-의견 없음
2-4	지역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구축	권선구 보건소	-변경내용 없음	-의견 없음
2-4		아동주치의 제도 도입	소아 건강 지킴 서비스 시범 운영 및 확대	권선구 보건소	-변경내용 없음	-의견 없음
2-5	지역	임산부 건강챙기기 프로젝트	산후 우울증 관리	팔달구 보건소	-변경내용 없음	-의견 없음
2-5		임산부 건강챙기기 프로젝트	산전 후 관리 (임산부역량강화)	팔달구 보건소	-변경내용 없음	-의견 없음
2-6	보편	수원시노인치매정 신건강센터 설치	수원시노인치매정 신건강센터 설치	영통구 보건소	-센터 설치 완료되었으므로 세부사업명 센터 운영으로 변경, 설치 관련 성과지표 및 세부사업 제외	-의견 없음
2-6		수원시노인치매정 신건강센터 설치	수원시노인치매정 신건강센터 운영	영통구 보건소	-의견 없음	-의견 없음
2-7	보편	마음건강지원사업	마음건강지원사업	장안구 보건소	-의견 없음 (국도비 확정에 따른 예산 변경)	-의견 없음

2) 보건의료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 지역아동센터 아동 교육 요구도조사 결과 공유
 - 1순위) 건강교육, 2순위) 학교폭력예방 교육
- 교육방법 : 보건의료분과 위원 강의, 전문 강사 요청
 - 영통복지관 학교폭력 놀이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 진행하고 있음
 - 단순한 전달식 강의보다 위원들이 참여하여 아이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소그룹 상담형식 건의
 - =>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전문 강사 교육, 위원은 보조 진행으로 참여

 - 영양건강교육 : 장안구보건소
 - 학교폭력예방교육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학부모 강사
- 경로당 어르신 교육
 - 장기요양제도 교육 : 송명은 원장님
 - 치매예방 교육 : 박연옥 원장님
 - 가능한 경로당부터 섭외하여 추진, 보건복지 서비스 안내 등
-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10월말 위원 위촉 예정이므로 향후 추진

3. 차기회의 일정

- 일정 : 2016. 10. 25.(화) 오전10:30
- 안건 : 분과 공동사업 논의, 2017 시행계획 모니터링 등